

##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 혜 진

한 영 석<sup>†</sup>

김 명 소

ACG컨설팅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학업지속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A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3,37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업지속의도 및 학업지속영향요인에 대한 성별 및 학년별 차이분석 결과, 성별과 학년에 관계없이 모두 대학만족 요인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다. 그러나 다른 영향요인들 간에는 성별과 학년별 차별적 요인이 나타났다. 학업지속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선정된 대학만족, 전공만족, 교육과정만족, 교수신뢰, 교수접근가능성, 대인관계만족, 대학활동만족, 대학서비스 및 기타 환경만족, 정서적 안정성, 학습습관, 통학만족,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지속 의도를 준거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만족, 통학만족, 교수신뢰, 경제적 어려움이 유의미한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학업지속, 학업지속 의도

\* 이 논문은 2012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2-0242).

† 교신저자 : 한영석,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330-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E-mail : nicehan@hoseo.edu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정원미달 사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2012~2013년을 정점으로 2017년 이후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져 2022년부터 대학의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7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입학자원의 감소는 대학 운영에 위기요인으로, 곧 대학의 존립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운영의 등록금 의존율이 40%~50%, 사립대 98개 곳의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76.3%로(한국경제신문, 2012. 06. 03), 대학 재정에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 운영위기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처럼 입학자원의 감소, 재정취약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대학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대학 구조조정, 대학의 재정지원강화, 대학 알리미를 통한 대학 정보공시제 실시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 중 대학 구조조정 즉, 대학구조개혁이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대학은 부실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부실대학을 평가하는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의존율, 법인지표 등 10개 항목이며 이중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은 부실대학 평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안정적인 학생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재정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대학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입학

생들의 중도탈락을 최소화하고 학업을 유지하게 하여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질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권혜진, 2009; 김수연, 2006; 이병식, 2003).

이는 사회적·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이 입학정원미달 사태, 낮은 재학생 충원율 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입학자원을 보유함으로써 교육과정을 더 잘 관리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균형 잡힌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성이 요구되는 일이다(김수연, 2006).

또한, Astin(1993)은 대학 경험이 대학생의 지적 역량과 대인관계적인 맥락에서 좀 더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개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학교를 떠난다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지위 획득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최길순, 2010). 이렇듯 대학에서 현재 입학한 자원을 유지하는 일은 대학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와 개인의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대학은 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학업지속 여부를 고민하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요인들과 A대학교의 자퇴상담 결과를 토대로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12개 요인을 선정하여 학업지속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처럼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현재까지의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대학에서 학생이 학업을 지

속하고자 하는 의도와 학업지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학업지속에 대한 선행연구

학업지속의 개념 및 정의

대학생들의 학업상태는 크게 학업지속과 학업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수연, 2010). 학업지속은 학생이 특정기간에 수학(修學)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대학에 등록하여 적을 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정태화, 2002), 반면 학업중단은 대체로 중도탈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자퇴, 휴학, 편입 등과 관련이 있다. 이는 1)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대학을 떠나는 것과 2) 대학(고등교육기관)의 학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pady, 1970).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학업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밝히고자 노력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김용남, 2009). 대학생들의 학업지속 영향 요인은 대부분 대학생의 학업중단과 관련된 여러 이론을 통해 학업중단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업지속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요인, 대학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예: Tinto, 1987; Metzner, Bean 1987; 김수연, 2006, 2010; 오영재, 2005), 이를 요약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개인변인

개인변인은 학생의 학업지속 여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온 변인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인종, 거주지 등이 있다. 김수연(2006)의 연구에서는 성, 연령, 거

표 1. 학업지속 영향 요인

요인		구성 요인
개인 요인	인구학적 배경	성, 연령, 부모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와 거주지 일치 여부, 주변사람들에 의한 지지 등
	심리적 변인	주변사람들에 의한 지지, 대학 및 전공 흥미, 대학교육에 대한 동기, 학교와 전공 선택의 목표의식, 대학에 대한 기대 및 열망, 사회진출 및 장기전망관련요인 등
개인 요인	지적변인	진로지도 경험, 고교성적, 학습습관, 학습태도 등
대학 요인	학문변인	직전학기 성적, 학습능력, 전공의 적성 및 진로 부합 정도, 전공 확산, 교, 강사진의 전문성, 다양한 교수매체 활용, 강의 질, 교육프로그램 및 교과과정 만족도 등
	기관변인	학교시설(교육 및 복지), 장학금지급률, 등록금 지원, 학습지원, 교직원 및 행정 서비스, 대학유형, 설립주체, 입학난이도, 소제지, 평판 등
사회적 요인	교수 신뢰, 교수와의 관계, 관심, 개방성, 강의실에서의 토론 및 질문, 교수면담 만족도, 전공에 대한 비전제시 등	선후배 및 동료, 친구관계, 학교/학과/동아리 등의 문화와 개인의 일치 정도, 학내 대외활동 참여 기회 및 만족도 등

주지와 학교의 소재지가 일치할 때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학업지속관련 연구를 종합한 Ramist (1981)은 학업지속여부와 나이는 무관하다는 의견과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결과가 반반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 대학에 다니기 위해 재정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지원정도 등은 학업지속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다루어 왔으며, 일부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Munro, 1981; 최길순 2010; 김용남, 2008, 김수연, 2010),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Trent와 Medsker(1968)은 가족배경이 학업지속 여부보다는 대학에 입학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pady, 1970에서 재인용).

Tinto(1975, 1987)는 개인이 대학을 졸업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헌신(commitment)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Munro(1981)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학년에 따라 성숙정도와 판단, 선호에 따라 목표가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업을 지속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대학의 최소한의 학문적 기준을 충족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업지속여부와 관련이 있다. 그 외 개인요인인 대학에서의 수업과 전공에 대한 흥미와 진로 상담 미흡, 대학 및 학과 정보부족, 고교성적 등도 학업지속에 대한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Munro, 1981; 오영재, 2005; 김경희, 2011; 강승호, 2010).

### 대학요인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이 학생이 가지고 있

는 기대 및 요구가 일치 할수록 대학 및 대학 선택에 대해 만족하게 되며,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이고 학업에 더욱 매진하게 되기 때문에 학업지속을 하고자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대학 관련 요인은 학문변인과 기관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문변인은 자신의 학업 수준과 그에 대한 만족, 전공진로에 대한 확신, 전공 및 적성/진로의 부합정도와 대학의 교육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교수매체활용, 강의의 질이나 내용, 전공프로그램의 질, 교수 및 강사진의 전문성 등이 학업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Munro, 1981; Tinto, 1987; 노혜란, 최미나, 2008; 김용남, 2008; 김재현, 2011; 천석준, 김영아, 2011).

정은이, 박용한(2008)은 대학생들이 교수에 대한 신뢰와 교수 능력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외적동기, 과제가치, 통제감 등의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곧 학업지속 여부에 강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학업적응 및 대학만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기관변인은 대학의 명성, 종류, 등록금, 장학금이나 시설 및 복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남(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 설립유형, 대학소재지 및 정규직 취업률, 장학금지급률, 등록금 평균 등이 학업지속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시설, 행정직원 서비스, 학교의 재정적 지원, 통학의 어려움 등 대학 서비스나 기타 환경에 대한 만족 관련 요인들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길순, 2010; 천석준, 김영아, 2011; 박희민, 2009).

###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교수 신뢰, 교수와의 관계, 관심, 전공에 대한 비전제시, 선후배 및 동료, 친구관계, 학교·학과·동아리 등의 문화와 개인의 일치 정도, 학내 대외활동 참여 기회 및 만족도 등이다.

Spady(1970), Tinto(1975), Pascarella(1980) 등은 대학에서의 학문적·사회적 경험과 개인 간 통합에 관련된 요인들이 학업지속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적 통합은 학생과 동료 및 선후배, 교수 및 교직원들 간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다(Tinto, 1975). 이를 검증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는데, Tinto의 이론에 기반 한 신입생의 학업지속 결정 관련 연구에서도 신입생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통합이라고 보고하였다(Metzner & Bean, 1987).

Astin(1977; Ramist, 1981에서 재인용)은 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학생의 성장과 대학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강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교수의 집에 초대되거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함께 일하거나 가르치는 것, 강의실 밖에서의 대화 등이 포함되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협력 과제를 수행하거나 조직이나 클럽, 사교 모임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 포함된다(Astin, 1993).

천석준, 김영아(2011)는 대학 내의 대인관계와 교수관계의 만족이 학업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대학생의 학업지속 경향성 척도 개발과 관련된 김수연(2010)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유대감 등을 측정한 사회적 통합성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는 학업지속 가능 집단과 중도탈락 가능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방 법

####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국내 A대학의 대학생 3,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거나 무응답 244부를 제외하고 총 3,37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1,859명(55.0%), 여학생은 1,437명(42.5%), 무응답 83명(2.5%)이었고, 이들 중 2학년 1,322명(39.1%), 3학년 1,094명(32.4%), 4학년 963명(28.5%)으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학업지속 관련 선행연구와 A대학교 자퇴 상담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학업지속 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학년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천석준, 김영아(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과 본 연

구를 실시한 A대학의 자퇴상담 결과에서 중복되는 요인을 도출하여 총 12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대학만족(위상, 대학선택 등), 전공만족(전공선택, 전공과 적성 일치 정도 등), 교육과정만족(전공, 교양교과과정 등의 만족), 교수신뢰(교수 역량, 수업열의 등), 교수 접근가능성(교수면담, 교수와의 관계 만족 등), 대인관계만족(선후배, 동기 간 관계 만족 등), 대학활동만족(대학 및 학과 행사, 활동 만족 등), 대학 서비스 및 기타 환경만족(장학금, 교직원 서비스, 시설 만족 등), 정서적 안정성, 학습습관(학습성취를 위한 개인 학습노력 등), 통학만족(대학의 통학관련 지원, 통학으로 인한 학업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등록금 및 생활비 조달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 서비스 및 기타 환경만족은 7개 문항, 나머지 11개 요인은 3개 문항으로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업지속 의도**

학업지속 의도는 학생들이 현재 수능 재응시나 편입 계획 여부가 있는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 과**

**집단간 학업지속영향요인 비교**

**성별에 따른 비교**

성별에 따른 학업지속영향요인 및 학업지속 의도를 비교한 결과 총 10개의 항목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각

표 2. 성별에 따른 학업지속영향요인 차이

(단위:  $M(SD)$ )

요인	남자 (n=1859)	여자 (n=1437)	t
대학만족	3.17 (0.81)	2.93 (0.80)	8.377***
전공만족	3.52 (0.90)	3.54 (0.93)	-.452
교과과정만족	3.35 (0.71)	3.19 (0.68)	6.939***
교수신뢰	3.89 (0.94)	3.83 (0.91)	2.032*
교수접근가능성	3.77 (0.92)	3.68 (0.88)	2.987**
대인관계만족	3.58 (0.93)	3.45 (0.91)	3.844***
학교활동만족	3.35 (0.94)	3.11 (0.92)	7.314***
대학환경만족	3.13 (0.68)	2.86 (0.61)	11.729***
정서적안정성	3.32 (1.05)	3.05 (0.92)	7.780***
통학만족	2.97 (0.81)	2.88 (0.83)	3.258**
경제적어려움	2.95 (1.01)	3.08 (1.06)	-3.374***
학업지속의도	3.13 (0.91)	3.15 (0.84)	-.462

\* $p<.05$ , \*\* $p<.01$ , \*\*\* $p<.001$

영역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대학만족’, ‘교과과정만족’, ‘교수신뢰’, ‘교수접근가능성’, ‘대인관계만족’, ‘학교활동만족’, ‘대학환경만족’, ‘정서적안정성’, ‘통학만족’에 대해 더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경제적어려움’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지속의도와 전공만족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비교**

학년에 따른 학업지속영향요인 및 학업지속 의도를 비교한 결과(표 3),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대학만족’, ‘교과과정만족’, ‘교수접근가능성’, ‘대인관계만족’, ‘학교활동만족’, ‘대학환경만족’, ‘경제적어려움’, ‘학업지속의도’이었다.

표 3. 학년에 따른 학업지속영향요인 비교 (단위:  $M(SD)$ )

요인	2학년 (n=1299)	3학년 (n=1066)	4학년 (n=931)	F	Scheffe
대학만족	3.03(0.80)	3.13(0.84)	3.06(0.81)	4.557*	3>4>2
전공만족	3.51(0.91)	3.55(0.91)	3.54(0.94)	.695	4=3=2
교과과정만족	3.24(0.70)	3.32(0.71)	3.28(0.68)	3.805*	3>4>2
교수신뢰	3.84(0.93)	3.88(0.94)	3.88(0.93)	.955	4=3=2
교수접근가능성	3.68(0.90)	3.76(0.90)	3.76(0.92)	3.385*	3>4>2
대인관계만족	3.47(0.91)	3.56(0.92)	3.56(0.93)	4.119*	3>4>2
학교활동만족	3.21(0.92)	3.30(0.94)	3.24(0.97)	3.162*	3>4>2
대학환경만족	2.97(0.63)	3.07(0.71)	3.01(0.67)	6.842**	3>4>2
정서적안정성	3.20(0.95)	3.20(1.05)	3.21(1.03)	.087	4=3=2
통학만족	2.92(0.85)	2.91(0.81)	2.99(0.80)	2.931	4=3=2
경제적어려움	2.98(1.01)	2.98(1.05)	3.08(1.05)	3.054*	4>2>3
학업지속의도	3.05(0.90)	3.16(0.87)	3.24(0.86)	12.861***	4>3>2

\* $p < .05$ , \*\* $p < .01$ , \*\*\* $p < .001$

세부요인별 추후분석(Scheffe test) 결과에 따르면 ‘대학만족’, ‘교과과정만족’, ‘교수접근가능성’, ‘학교활동만족’, ‘대학환경만족’ 요인은 3학년, 4학년, 2학년의 순으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통학만족’ ‘경제적어려움’은 4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의 순으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속의도’는 4학년, 3학년 그리고 2학년의 순으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의 학업지속과 관련된 요인에서 전반적으로 3학년을 기점으로 만족감이 상승하며, 4학년에 이르러서는 만족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지속의지는 졸업을 앞둔 4학년을 이르러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지속 영향 요인, 학업지속 의도 간 상관 분석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A대학의 자퇴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12개 요인들과 학업지속 의도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지속 영향요인 사이에서 교수신뢰와 교수접근가능성이  $r = .804$ , 대인관계만족과 대학활동만족이  $r = .670$ 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안정성,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한 요인들은 대체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 $r = .047 \sim r = .804$ ), 정서적 안정성은 대학만족과 관련이 없었고 경제

표 4. 학업지속 의도와 학업지속 영향 요인간 상관분석

	M(SD)	1	2	3	4	5	6	7	8	9	10	11
1. 대학만족	3.07(.82)	.92										
2. 전공만족	3.53(.92)	.412**	.82									
3. 교과과정만족	3.28(.70)	.573**	.530**	.79								
4. 교수신뢰	3.86(.93)	.300**	.493**	.512**	.85							
5. 교수접근가능성	3.72(.90)	.318**	.471**	.522**	.804**	.86						
6. 대인관계만족	3.52(.92)	.380**	.432**	.465**	.523**	.548**	.74					
7. 대학활동만족	3.24(.94)	.465**	.389**	.515**	.382**	.435**	.670**	.86				
8. 대학 서비스 및 기타환경 만족	3.01(.67)	.511**	.222**	.575**	.218**	.289**	.322**	.477**	.77			
9. 정서적 안정성	3.20(1.00)	.004	.120**	.034*	.141**	.133**	.102**	.069**	-.095**	.81		
10. 통학만족	2.94(.82)	.198**	.047**	.181**	.069**	.092**	.111**	.173**	.215**	.101**	.88	
11. 경제적 어려움	3.00(1.03)	.039*	.010	.015	-.028	-.018	-.010	.027	.033	-.227**	-.293**	.75
12. 학업지속 의도	3.13(.88)	.266**	.165**	.199**	.163**	.161**	.149**	.142**	.114**	.045**	.141**	-.075**

/ Cronbach' α \*p<.05, \*\*p<.01, \*\*\*p<.001

적 어려움은 대학만족 ( $r=.039$ ), 정서적 안정성( $r=.227$ ), 통학만족( $r=-.293$ )에서만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지속 영향 요인들과 학업지속 의도는 모두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075 \sim r=.266$ ).

학업지속의도의 중요 설명변인에 대한 집단간 비교

학생들의 학업지속의도를 설명하거나 예견하는 중요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러한 변인들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퇴와 관련된 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학업지속의도를 준거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집단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5개의 변인이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변량의 절반을 넘는 53%를 설명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학업지속의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대학만족’이었고 다음으로 ‘통학만족’, ‘교수신뢰’, ‘경제적어려움’, ‘대학환경만족’, ‘교과과정만족’이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표 5. 전체 집단의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측변인	β	Sr <sup>2</sup>	누적Sr <sup>2</sup>	F
대학만족	.272	.074	.074	261.69***
통학만족	0.95	.083	.157	147.33***
교수신뢰	.094	.091	.248	108.70***
경제적어려움	-.053	.093	.341	84.02***
대학환경만족	.044	.094	.435	68.29***
교과과정만족	.055	.096	.531	57.80***

\*\*\*p<.001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비교**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라 학업지속의도를 설명하는 중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요약되어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 ‘대학만족’이 학업지속의도를 예언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통학만족’, ‘교수신뢰’, ‘경제적어려움이 이들의 학업지속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변인은 남학생들의 학업지속의도의 변량을 약 33.7%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대학만족’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고, 다음으로 ‘교과과정만족’, ‘통학만족’, ‘전공만족’, ‘전공만족’, 마지막으로 ‘대학환경만족’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변인들은 여학생들의 학업지속의도의 변량을 약 49.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비교할 때 독특하

게 나타난 요인은,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대학환경만족’, ‘전공만족’ 및 ‘교과과정만족’ 요인이 나타난 점이고,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과 달리 ‘교수신뢰’, ‘경제적어려움’ 의미있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여학생의 경우 성에게서 종교요인이 의미있는 설명변인으로 도출한 것은 다른 행복요인과의 관련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에 따른 비교**

응답자들의 학년에 따라 학업지속의도를 설명하는 중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요약되어 있듯이 2학년의 경우, ‘대학만족’이 학업지속의도를 예언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통학만족’이 이들의 학업지속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변인은 2학년들의 학업지속의도의 변량을 약 17.8%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3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과 다소 차이가 나

표 6. 성별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집단	예측변인	$\beta$	$Sr^2$	누적 $Sr^2$	F
남학생	대학만족	.266	.071	.071	140.77***
	통학만족	.107	.082	.153	82.18***
	교수신뢰	.097	.090	.243	60.92***
	경제적어려움	-.062	.094	.337	47.53***
	대학만족	.290	.084	.084	130.81***
여학생	교과과정만족	.121	.094	.178	74.34***
	통학만족	.075	.100	.278	52.69***
	전공만족	.083	.105	.383	41.69***
	대학환경만족	.068	.108	.491	34.37***

\*\*\*p<.001

표 7. 학년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집단	예측변인	$\beta$	$Sr^2$	누적 $Sr^2$	F
2학년	대학만족	.261	.068	.068	94.78***
	통학만족	.079	.090	.178	42.54***
3학년	대학만족	.280	.078	.078	89.711***
	교수신뢰	.137	.097	.175	59.31***
4학년	경제적어려움	-.131	.084	.259	56.699***
	대학만족	.275	.076	.076	75.779***
	교과과정만족	.134	.089	.175	45.079***
	통학만족	.101	.098	.263	33.582***
	교수접근가능성	.081	.103	.366	26.597***
	대학환경만족	.080	.108	.474	22.265***

\*\*\*p<.001

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대학만족’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고, 다음으로 ‘교수신뢰’, ‘경제적어려움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변인들은 3학년들의 학업지속의도 변량을 약 25.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에는 3학년과 2학년과 동일하게 ‘대학만족’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고, 다음으로 ‘교과과정만족’, ‘통학만족’, ‘교수접근가능성’, ‘대학환경만족’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변인들이 4학년의 학업지속의도 변량을 47.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대학이 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학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지속을 하는 의도와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학업지속 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과 학년별 이들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은 대학만족, 전공만족, 교과과정만족, 교수신뢰, 교수접근가능성, 대인관계만족, 학교활동만족, 대학 서비스 및 기타환경만족, 정서적 안정성, 통학만족, 경제적 어려움이며 준거변인은 학업지속 의도이다.

연구결과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분석결과 전공만족에서는 남녀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차이분석한 결과는 전공만족, 교수신뢰, 정서적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학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요인은 대학만족 변인이었다. 대학만족 변인은 대학자체가 가지는 위상과 이미지 및 자부심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원인을 연구한 김재현(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김재현은 전문대생이 받는 부정적 사회인식은 중도탈락을 높이는 중요요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 대학이 충청권 소재한 지방대이었다. 따라서 지방대라는 부정적 사회인식이 중도탈락의 중요요인으로 도출된 것으로 추론가능하다. 다음으로 중요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통학만족 요인이었다. 통학요인은 중도탈락과 관련된 맥락적 요인으로 거리상 통학이 어려운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닐수록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최명선 및 강지희(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추가적으로 통학만족은 상대적으로 남학생과 2학년 및 4학년에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지속의지와 관련된 변인은 교수신뢰요인이었다. 교수신뢰 요인은 학과교수의 능력/역량에 대한 신뢰 및 지식 이외에도 인격적인 신뢰가 가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학과교수의 능력 및 인격에 대해 신뢰 할수록 학업지속의지가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도탈락을 연구한 문은식(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문은식(2006)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우호적이며, 지지적인 정도에 따라서 학교 중도탈락행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수신뢰는 남학생과 3학년 학생에서 학업지속 의지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교수신뢰요인 다음으로 학업지속의도와 관련성있는 변인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걱정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을 분석한 노혜란, 최미나(2008)는 학비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경우 중도 탈락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남학생과 3학년 학생에서 학업지속의지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업지속의지와 관련성이 높은 변인은 대학환경만족이었다. 대학환경만족은 대학기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지원제도, 전반적 면학분위기, 행정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학환경 만족은 여학생과 4학년 학생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속의지와 관련성을 보인 요인은 교과과정만족요인이었다. 이는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의 수준과 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다양한 교양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학과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수록 학업지속 의지가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학업지속 영향요인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 상담 현장이나 대학내 상담센터에서 보다 효과적인 상담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대학생들의 학업지속의도는 대학생의 중도탈락과 관련된

부분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서 차별적인 학업지속관련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년별 중다회귀분석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보다 다각적인 이유가 학업지속의도와 관련됨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의 학생면담과 진로상담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별적인 상담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기관의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학업지속의도와 관련된 주요변인으로 나타난 것을 대학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할 대학의 위상과 장학금과 같은 대학 환경 및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가 지방에 소재한 대학으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대학의 위상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다. 비록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대학자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더해서 학생들의 교육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실제로 자퇴상담을 통해서 도출된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양적 자료를 확보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학업지속 의도는 수능 채우시 및 편입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써 응답에 다소 모호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학업지속 의도에 대해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는 1학년이 제외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후에 각각의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학업지속 의도, 그리고 이들 간 관계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과 학년 별 차이가 있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은 학생의 학업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승호 (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9-53.
- 권혜진 (2011).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 변인이 사이버대 재학생의 중도탈락의도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3), 404-412.
- 김경희 (2011). 지방대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8), 378-387.
- 김수연 (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분석. *한국교육*, 33(4), 33-62.
- 김수연 (2010). 대학생의 학업지속 경향성 척도 개발과 양호도 검증. *진로교육연구*, 23(3), 1-29.
- 김용남 (2009). 대학생의 학업중단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현 (2011). 전문대학생의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 변인과 중도탈락의도의 위계적 관계. *한국직업교육학회*, 30(2), 249-266.
- 김재현 (2011). 전문대학생의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 변인과 중도탈락의도의 위계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0. p249-266.
- 노혜란, 최미나 (2008). 대학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인적자원개발연구*, 11(1), 89-107.
- 문은식 (2006).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0(2). p405-423.
- 박희민 (2009). 전문대학 학생중도탈락 요인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병화 (2009).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오영재 (2005).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1), 327-356.
- 이병식 (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 특성의 탐색적 분석. *한국교육학회*, 41(2), 135-154.
- 정은이, 박용한 (2008). 대학생들이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9(1), 73-93.
- 천석준, 김영아 (2011). Tinto의 「분리-전환-통합」 모델에 입각한 대학생활적응검사 I·I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235-262.
- 최길순 (2010).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즈니스리뷰*, 3(1), 95-118.
- 최명선, 강지희 (2008). 대학생 중도탈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 연구*, 15(7). p203-225.
- 한국 경제 뉴스 (2012). 거꾸로 가는 사립대... 등록금 의존 더 심해졌다. 2012년 06월 03

- 일.
- Astin, A.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San Francisco: Jossey-Bass.
- Metzner, B. S., & Bean, J. P. (1987). The estimation of a conceptual model of nontraditional undergraduate student attri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7(1)*, 15-38.
- Munro, B. H. (1981).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Path analysis of a national sampl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8*, 133-141.
- Pascarella, E. T. (1980). Student-faculty informal contact and college outcom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4)*, 545-595.
- Ramist, L. (1981). *College student attrition and retention (Report No. 81-1)*.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New York.
- Spady, W. G. (1970).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An Interdisciplinary. *Review and Synthesis. Interchange, 1(1)*, 64-85.
- Tinto, V.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 89-125.
- Tinto, V. (1987). *The Principles of Effective Retention*. Paper presented at the fall conference of the Maryland College Personnel Association, Largo, MD.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Secon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Tinto, V. (2002). *Promoting Student Retention: Lesson Learned from the United States*.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Access Network, Prato, Italy. June 19.
- 1차원고접수 : 2013. 10. 16.  
 심사통과접수 : 2013. 12. 18.  
 최종원고접수 : 2013. 12. 27.

## A Study on the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of universities students

**Hye-jin Park**

ACG컨설팅

**Young-seok Han**

Hoseo University

**Myoung-so Kim**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predictors of academic persistence. A sample of 3,379 students who studies in A university wer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In analysis of gender and grade level differences, university satisfaction was most important variable. However, other factors that influence discriminatory factor between gender and grade level, respectively. Prediction of persistence consists of 12 factors including satisfaction of institution, major, curriculum, etc. We identified the relative effects between each of the 12 factors and intention of persistence. The results of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satisfaction of institution, distance between residence and location of institution, faculty trust, economic difficulti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ion of persistence. And, 6 of the 12 factors and intention of persistence had significant differential effect by the school year. Finally,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 persistence,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